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인천의꿈 대한민국의미래	
		배포일자	2022년 10월 7일(금) 총 3매		
담당 부서	여성정책과	담당자	• 여성권익팀장 이지은 ☎440-2756 • 담당자 박재홍 ☎440-2757 • 담당자 이은경 ☎440-2758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여성폭력 없는 안전한 인천 위해 협업의지 다져
- 7일, 인천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개최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여성폭력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인천 구현을 위해 10월 7일(금)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22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2020년 10월 「인천시 여성폭력방지과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처음 구성한 이후 위촉기간 만료로 인해, 이번에 제2기 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 지난 2년 간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회의만 진행했으나, 올해부터는 대면회의로 개최했다.

위원회는 여성폭력방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제도 개선 및 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한다. 시 의원, 여성·인권단체,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피해자 긴급 구조 및 치유 의료기관, 교육청 등 교육 기관, 경찰·검찰 등 사법기관의 대표 또는 종사자로 구성돼 실질적인 여성

폭력방지 역할이 기대된다.

이날 회의는 위원회 공동위원장이자 인천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인 이행숙 부시장의 주재로 위원 위촉, 민간 공동위원장 선출, 여성폭력실태 조사결과 보고 등으로 진행됐다. 참석위원들은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여성폭력 없는 행복한 인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기관 간 협업이 중요하다는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를 다졌다.

공동위원장인 이행숙 부시장은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여성 폭력 사건들을 보여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다”며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과 더불어 스토킹, 데이트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그 폭력 양상과 형태가 더욱 잔인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시행해 여성 뿐 아니라 모든 시민분들께서 안심하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여성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여성긴급 전화 1366센터 등 27개소의 여성권익시설인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을 운영 중이다. 또 일반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은 물론,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활용한 예방 홍보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센터를 운영해 피해자 원스톱 통합지원,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수시 점검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성범죄 피해 예방과 권익보호에 힘쓰고 있다.

<회의사진>

